

쿠웨이트전 필승 비책 영암 훈련에서 찾는다



최강희號 18일부터 현대삼호중 구장서 훈련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최강희호(號)'가 전남 영암에서 첫 소집훈련을 한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8일 전남 영암 목포현대호텔에서 모여 우즈베키스탄(25일)과의 평가전과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인 쿠웨이트 경기(29일) 준비에 착수한다.

그동안 대표팀은 주로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를 훈련장으로 활용했지만 추위를 고려해 따뜻한 남쪽 지방을 선택했다.

대표팀은 목포현대호텔에 머무르면서 영암에 있는 현대삼호중공업 천연잔디구장에서 훈련하기로 했다.

최 감독은 전북 사령탑 시절부터 겨울 전지훈련을 영암에서 주로 치렀다. 전북은 최 감독 부임 후인 2006년부터 영암 현대삼호중공업 천연잔디구장에서 겨울 전지훈련의 마지막 담금질을 해왔다.

날씨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데다가 외부인 접근이 어려운 공업단지내 훈련장이 위치해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잔디구장을 2면이나 갖춘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훈련장에서 속속까지는 자동차로 10분 거리밖에 되지 않아 이동에도 편리하다.

한편 해외파 선수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위해 3일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 최 감독은 귀국 후인 8일께 우즈베키스탄전과 쿠웨이트전에 나설 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기성용 허벅지 부상 ... 장기화 땀 쿠웨이트전 '비상'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활약하는 기성용(셀틱)이 허벅지 부상으로 2~3주 동안 그라운드에서 나서지 못할 전망이다.

기성용의 에이전트사인 C2글로벌은 1일 "기성용이 오른쪽 허벅지 앞쪽 근육에 통증 을 느끼고 있다"며 "오늘 구단에서 정밀진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이전트 측에 따르면 기성용은 지난달 30일 풀커크와의 2011-2012 커뮤니티 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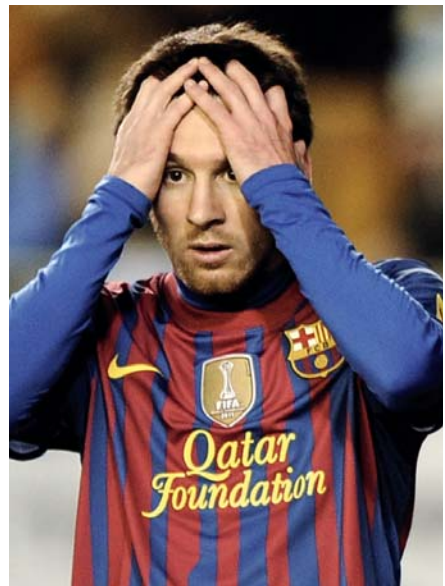
그립 준결승을 뛰고 나서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했다. 풀커크전에 앞서 훈련을 하던 도중 동료와 부딪힌 기성용은 단순한 타박상으로 생각해 리그컵 준결승에도 후반에 교체 출전했다.

민약 부상이 길어진다면 오는 29일 쿠웨이트와의 2014 브라질 월드컵 3차 예선 최종전을 앞둔 축구 대표팀에도 큰 손실이 불가피하다. /연합뉴스

천하의 메시도 PK 실축

스페인 국왕컵 4강 1차전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의 바르셀로나가 '골잡이' 리오넬 메시의 페널티킥 실축으로 2011-2012 국왕컵(코파 델 레이) 4강 1차전에서 비겼다.



FC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바르셀로나는 2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메스타야 스타디움에서 열린 발렌시아와의 4강 1차전 원정에서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바르셀로나는 메시의 페널티킥 실축이 뼈 아팠다.

경기 초반 발렌시아의 공세에 주춤했던 바르셀로나는 선제골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다. 발렌시아는 전반 27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매튜의 패스를 받은 호나스가 바르셀로나의 골 그물을 먼저 흔들며 앞서 나왔다.

반격에 나선 바르셀로나는 전반 35분 수비수 카를레스 푸욜의 헤딩 동점골을 앞세워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고 전반을 1-1로 마쳤다.

후반 들어 발렌시아를 거세게 몰아붙인 바르셀로나는 후반 10분께 페널티지역에서

티아가 상대 수비수의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얻어내 승리를 눈앞에 둔 듯했다.

하지만 키커로 나선 메시의 슈팅은 발렌시아의 골키퍼 알베스 디에고의 손끝에 걸리고 말았다. /연합뉴스



불타는 축구장 ... 선수들 대피

이집트 축구팬들이 1일 포트사이드에서 벌어진 난투극 탓에 최소 73명이 숨지고 1천명 가량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보도했다.

이집트 축구장 참사... 70여명 사망

이집트 축구팬들이 1일 포트사이드에서 벌어진 난투극 탓에 최소 73명이 숨지고 1천명 가량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보도했다.

지중해 연안 도시 포트사이드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이집트에서 발생한 최악의 경기장 참사다.

세계적으로도 78명이 숨진 1996년 과테말라 시티 사건 이후 가장 심각한 축구장 내 인명피해 사고다.

사건은 포트사이드 홈 팀인 '알 마스리'가 이집트 최강팀이자 카이로가 연고지인 '알 아흐리'를 상대로 뜻밖에도 3-1 승리를 거둔 게 계기가 됐다.

두 팀은 이집트 리그에서 오랜 라이벌 관계였다.

경기 종료 직후 일부 홈팬 관중이 경기장에 난입하자 다른 관중이 가세해 원정팀 응원단은 물론 선수와 진행요원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했다. 둔기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고, 달아나던 관중이 좁은 출

구로 함께번에 몰리면서 압사자가 생기는 등 인명 피해가 불어났다.

경기를 중계하던 TV 화면에는 관중이 마구잡이로 폭력을 휘두르는데도 불구하고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손을 쓰지 못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현지 보건 관리인 헤삼 세이하는 사인 대부분이 뇌진탕과 머리 부분의 심한 자상, 그리고 좁은 공간에 인과가 몰려든 데 따른 질식사였다고 밝혔다.

알 아흐리 소속 축구선수 모하메드 아부 트리카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며 "축구경기가 아니라 전쟁터였다"고 성토했다.

사건 직후 이집트 축구협회는 리그 경기를 무기한 중단했다.

이집트 검찰은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집트 의회도 임시회의를 소집했다.

이번 사건이 정치적 문제와는 무관했지만,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자제력을 상실



이집트 축구팬들이 1일 포트사이드에서 벌어진 난투극 탓에 최소 73명이 숨지고 1천명 가량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보도했다.

한 대규모 군중에 대해 경찰이 처안을 확립할 통제력을 갖췄는지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은 이 사건에 대해 "축구계의 암흑의 날에 상상할 수도 없고 벌어져서는 안 됐던 비극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매우 충격적이고 슬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996년 과테말라서 79명 사망 150여명 다쳐

세계의 축구 참극

1일(현지시간) 관중 간에 벌어진 난투극으로 70여 명이 숨진 이집트 축구장 난투극은 스포츠 역사에 남을 최악의 사건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의 인명피해 규모는 1996년 10월 과테말라 시티에서 발생한 축구장 참사 때와 맞먹는 것이다. 당시 과테말라와 코스타리카의 월드컵 예선 경기를 앞두고 관중이 출입구에 한꺼번에 몰리면서 79명이 압사하고 150여 명이 다쳤다.

이에 앞서 1985년 벨기에 헤이젤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버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유로파인컵(챔피언스리그의 전신) 결승전도 참사 현상으로

바뀌었다. 리버풀 팬들이 경찰 저지선을 뚫고 유벤투스 팬들을 위협하다가 콘크리트벽이 무너져 39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다쳤다.

노팅엄과 리버풀의 잉글랜드축구협회(FA)컵 준결승전이 열린 1989년 4월 셰필드에서는 경기장 입구에 운집한 팬 수백 명이 쓰러져 96명이 밟혀 숨지는 참극이 벌어졌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선수단은 1958년 2월 유고슬라비아에서 열린 유로파인컵 대회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주축 선수 대다수를 잃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검은 9월단'은 1972년 뮌헨 올림픽 당시 이스라엘 선수 11명을 학살했다. /연합뉴스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일양신협 조합원의 집)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안테나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여름상품, 겨울상품, 체인 - 맥과이어스광택, 코팅, 실내용클리너, 허부언더코팅 - 자동차경비일체, 빗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비뒤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모비스순정용품, 키약세사리 일체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비게이션 - 한국타이어, 글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 전국최저가 판매 - 국내최대 500평매장 - 주차장 700평 주차격정 끝

아이나비 | 만도네비 | 모비스네비

블랙박스 | 후방카메라 | 샤크안테나

도난경보기 | 이자카 | 스타트버튼

▶ 거치형 본인 네비 매립 전자종 17만원 ⇒ 12만원

▶ 아이나비K100, 3D(8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50만원

▶ 아이나비ES5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7만원

▶ 만도정품MD300,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만도지니 J7, 2D(4G)+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48만원 ⇒ 40만원

▶ 모비스폰토스 PU-7, 3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60만원 ⇒ 52만원

▶ 모비스폰토스 K-7, 2D+마감재+샤크안테나+후방카메라 58만원 ⇒ 45만원

▶ 트립형 매립차량은 상담후결정

트립 이동형 장착 모습

매립장착모델 전자종기능

만도 블랙박스 BN100

대한민국 대표 후방카메라 시그널 후방카메라

샤크안테나 및 통합안테나

▶ 본인네비 매립 = 7만원 ⇒ 12만원

▶ 후방카메라 = 15만원 ⇒ 9만원

▶ 샤크안테나 = 10만원 ⇒ 6만원

▶ 만도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5만원 ⇒ 30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4기가 전방 = 22만원 ⇒ 19만원

▶ 모비스블랙박스 8기가 전, 후방 = 37만원 ⇒ 33만원

추가부품(옵션) 차량은 금액이 추가 될수 있음 *차량용 고급함수 2만원 상당 무료증정

▲ E770B 40만원

▲ E770S 43만원 / E7-B 51만원

▲ E7 37만원

▲ E7 17만원

▲ E1 7만원

▲ E2620 10~14만원

▲ E5500 25만원